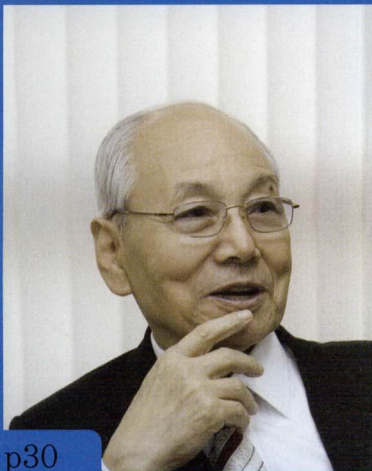


CONTENTS



p30

특별초대석 서영훈 이사장



p8

여수 세계 박람회 유치확정



p22

청와대 동정



p24

국무총리 동정

4 중앙선관위원회 공익광고

5 포토영상

6 송년 포토영상〈일몰〉

8 뉴스초점

2012세계박람회 여수유치확정

16 칼럼

22 대한뉴스

청와대 동정

24 대한뉴스

국무총리

26 대한뉴스

대한적십자사

28 대한뉴스

유엔사무총장

30 특별초대석

(사)신사회 공동선운동연합 서영훈이사장

34 카메라포커스

해군 독도함(경항공모함) 한,미 해병상륙작전 지휘

40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한국여성재단 박영숙 이사장

46 지방자치순례

명품도시 남양주시 이석우 시장

52 이달의 초대석

(사)세계선린회 신익호 회장

58 포토영상

60 **카메라 포커스**

한국전문신문협회 창립43주년 기념

64 **인물포커스**

한국아파트신문 류기용 발행인

66 **이 한권의 명작**

최은희의 고백

70 **대선거획특집**

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72 **대선거획특집**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74 **대선거획특집**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76 **대선거획특집**

민주당 이인제 후보

78 **대선거획특집**

국민 중심당 심대평 후보

80 **대선거획특집**

창조 한국당 문국현 후보

82 **대선거획특집**

무소속 이회창 후보

84 **작가의 세계**

88 **스포츠 단신**

김연아, 박태환

90 **2007 세계10대뉴스**

92 **2007 국내10대뉴스**



p26

대한적십자사 동정



p34

해군독도함 위용



p40

한국 여성재단 박영숙 이사장



p46

이석주 남양주 시장

이 땅의 모든 딸들에게 희망을!

(사)한국여성재단 박영숙 이사장



대한민국 최초로 민간여성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출범한 한국여성재단(Korea Foundation for Women)은 올해로 창립 8주년을 맞이한다.

1999년 12월 6일, '딸들에게 밝은 새천년을 열어 준다'는 기치아래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과 전국 124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 육성을 위한 민간 여성공익재단이다. "모든 생활 영역에서 진정한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

해 국민의식의 변화를 도모하고 세계화시대에 걸맞게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며, 남녀가 조화롭게 공존, 발전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불평등과 편견에서 벗어나 남녀의 조화로운 공존 속에 모성이 보호되고 사회 곳곳의 소외된 여성들에게 힘과 희망을 주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자"라고 발족문에 명시해 놓았다.



▲ 여성노숙자들을 위한 전문 보호시설 쉼터 입주기념식에 참석한 박영숙 이사장(중앙) 우리들의 좋은집 서정화 소장(옆)

성평등사회를 위한 여성단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한국여성재단의 기본 기능은 배분사업이다. 2003년 부터 시작된 재단의 배분위원회는 여러 분야의 기업과 후원자들로 부터 모아진 자금을 해마다 적재적소에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심한다.

창립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박영숙이사장은 “여성운동이 필요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여성운동의 궁극적 목표이다.”라고 말한다.

선진화된 사회를 위하여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진 구조를 양성평등사업으로 조화롭게 하는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온 여성계의 선행자(先行者)이다.

‘한국여성재단’의 박영숙이사장은 SBS로부터 지원을 받아 저소득 여성의 빈곤화 현상을 돕는 일에

여성가장의 생계비 및 복지증진사업을 하였으며 삼성생명으로부터 공익기금을 전달받아 국제결혼 이주여성가정 모국 방문지원을 하였다. 최근 몇년동안 국제결혼과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늘어나 아시아에 대한 호혜적 관심을 요청받고 있는 현 시기에 이주여성을 위해 기업이 사회적 소명을 다하는데 가교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그 결과 가족원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타문화권의 가족들이 상호 이해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국제결혼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단결의 문제해소에 중요한 계기를 이루었다.

한화기업으로부터는 남성과 함께 거했던 시설에서 자주 발생한 성희롱, 성추행으로 인하여 심적, 육적으로 고통받던 여성노숙자들을 위한 쉼터를 2005년도 용산에 건립하는데 협조를 받아 새롭고 건강



▲ 2007년 5월 100인 기부릴레이 모금 캠페인 발대식
(사진 오른쪽부터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 김경오 대한민국 항공회총재, 한국여성재단 박영숙 이사장)



▲ 한국여성재단 창립 7주년 기념식 및 후원행사(사진 왼쪽부터 문국현 대선후보, 세번째 홍미영 대통합신당 의원, 다섯번째 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 오른쪽 세번째 박상증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 제2회 2007 Big Women Fashion Show (삼성동 섬유센터 이벤트홀)

한 사회인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해마다 5월이면 집중적으로 추진되는 한국여성재단의〈100인 기부 릴레이〉모금캠페인이 올해로 5회째 맞이했다. 금년도 캠페인 주제는〈빈곤의 여성화해소〉였는데 2003년 1528명 2004년 2252명 2005년 1760명 2006년 2100명 2007년 2310명으로 점차적으로 기부문화가 사회에 정착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100인 기부 릴레이〉모금 캠페인은 지금까지 1만명이 넘는 릴레이 주자들이 줄을 이어왔으며 각 개인이 기부할 뿐만 아니라 타인(他人)에게 기부를 권하여 계속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운동이다. 이들 중에는 지



▲ 저소득 여성 건강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한태우 생그린 이사)

난 3년 동안 이어서 달린 참가자가 있는가 하면 올해 처음 동참한 이들도 있다.

특히 한국여성재단 산하에서 열성적으로 봉사하고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위한 최첨단 사무화를 지원하기 위해 유한킴벌리 기업으로 부터 콤팩노트 북 7대를 지원받아 지역사회내 NGO 활동의 질높은 사업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동을 도왔다. 또한 국내 여성활동가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하도록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쉼프로젝트 '짧은 여행 긴호흡'을 교보생명으로 부터 매년 후원받아 진행하고 있다.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며 이루어 가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과 절망 속에서 빛을 찾는 이들을 위해 한 줄기 빛이 되어 활동하는 모든 NGO여성단체 활동가들에게 열정을 다하여 지원하고 계획하는 한국여성재단 박영숙이사장과 물신양면으로 협조하고 기부하는 각 기업과 후원자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취재 김상석 발행인/김희탁 부장
사진 박영배 부장



▲ 매출액 1% 기부운동 참가서약. 김순진 센트럴 보쌈점 사장



▲ 매출액 1% 기부운동 참가서약. 조남수 국민은행 서초 지점장



한국 여성재단 박영숙 이사장과 인터뷰 중인 본지 김상석 발행인 ▲